



안동을 찾은 하이박 동우회 무료 시식회를 통한 회원간 기술 교류 활성화

하인즈 빵과자 경연대회 역대 수상자들의 모임인 하이박 동우회(회장 정향우)는 활발한 기술 교류와 연구 활동으로 '노력하는 제과인상'을 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하이박 동우회의 움직임이 부쩍 더 분주해진 느낌이다.

지난해 12월 4일, 경북 안동시 맘모스제과(대표 이석현)에는 이른 아침부터 10여 명의 제과인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제과업계 전체 이해가 없는 문외한만 아니라면 금방 "어디서 본듯한 얼굴인데..."하고 머리를 갸웃거릴 이 '낮익은 손님'들은 다름아닌 하이박 동우회 소속의 중견 기술인들이다. 하이박 동우회 회원들을 초청, 신제품 홍보와 무료시식회를 겸한 이날 행사는 당초 경상남·북도와 제주도권역인 제3지회(지회장 손철배)가 주축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새벽길을 달려온 다른 지회 소속 회원들도 적지않게 모습을 보인다.

"이무리 좋은 제품도 제대로 홍보, 보급하지 않으면 상품성을 발휘하기 어렵잖아요. 하이박 동우회에서는 신제품 보




급과 기술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회원업소를 순회하며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리빵류와 쿠키 등 8가지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보여 피곤한 줄을 모르겠네요."

모두들 제품 생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는 동안, 일부 회원들은 매장 한편에서 고난도의 테커레이션 기법을 선보여 시선을 끌었다. 섬세한 손끝에서 화려한 꽃송이가 만개할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연신 "와!"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온 것은 물론이다.

"갓 구워낸 빵을 잘라 시식을 권하고, 회원들이 직접 제품에 대

한 설명을 곁들여주니 고객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를 자주 가질 생각입니다."

맘모스제과점은 이날 하루 종일 하이박 회원들이 애써 준비한 빵맛을 즐기려는 고객들로 큰 성황을 이뤘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에게 이날은 모처럼 가슴 뿌듯한 시간이었을 것이다(이날 행사에 선보였던 제품은 2월호에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글/ 이종원>